

圖書館學의 體系化에 관한 研究

—圖書館“觀”의 問題—

金 正 昭*

<目 次>

- | | |
|----------------------------------|----------------|
| I. 研究의 動機와 目的 | IV. 圖書館 定義의 試圖 |
| II. 問題의 陳述 | V. 結論 |
| III. 文化暢達의 條件造成으로서의
圖書館“觀” 批判 | |

I. 研究의 動機와 目的

1957年 延世大學校에서 圖書館學科를 설치한 이래 20년이 흘렀다. 大學에 學科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꼭 중요한 일이다. 즉 그것은 圖書館學의 學問的 體系의 承認이요, 동시에 圖書館에 대해 관심 두어야 할 충분한 時代的 社會的 要求를 말해 주는 것이다. 學問 研究에 있어서 20년의 세월을 두고 圖書館學 연구공토를 是非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겠지만 그러나 암중모색은 아니어야 한다는 시급한 현실에서 볼 때 20년의 세월은 충분한 意義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몇 분 先學들이 우리나라 圖書館學에 대한 反省과 未來에의 意志를 밝히고 있으며 도서관학의 體系樹立을 위한 시험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그 연구의 보고는 圖書館學 연구 종사자들의 관심의 的 이 되고 있으며 활발한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본 연구도 圖書館學 體系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 참여하려는 의도에서 起因된 것이다.

圖書館學의 體系에 대한 논쟁은 그 幅이 매우 넓다. 圖書館學에 대한 명칭의 眞實性 여부를 묻는 초보적인 물음부터 圖書館學의 學問的인 成立가능

* 啓明大學校 併設專門學校 圖書館學科

2 도서관학논집

성과 學問으로서의 圖書館學의 性格과 같은 基本的인 물음, 그리고 大學 圖書館學科의 教育內容——大學의 敎科內容은 바로 그 學問의 體系를 대변한다는 의미에서——을 主題로 하는 물음 등이다.

본 연구는 이 물음들을 해결하려는 그 첫번째의 課題 즉 圖書館“觀”을 취급한다. “觀”의 확립을 서두르고 그 “觀” 위에서 上記의 물음들을 몇가지 독자적 문제로 나누어 분석검토해 볼 계획이다. 여기서 “觀”이란 圖書館의 理念 혹은 社會的 方向에 관한 “觀”이 아니라 圖書館 그 자체 圖書館의 現狀에 관한 “觀”이다. 理念 혹은 社會的 方向에 대한 “觀”도 좋지만 우선 社會文化的 現狀으로서의 圖書館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도 모른다.

본 연구가 社會文化的 現狀으로서의 圖書館을 파악하려는 試圖은 先行研究에서 좀처럼 試圖되지 않고 있었으며⁽¹⁾ 그런 意味에서 이 方面의 연구는 크게 요청되고 있다. 이 방면 연구의 試驗的 研究로서도 이 研究는 意義가 있을 것이다.

II. 問題의 陳述

政治, 經濟, 敎育의 起源은 人間의 起源과 같이 한다. 人間이 스스로의 生命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식은 곧 政治, 經濟, 敎育을 낳았던 것이다. 根本적으로 이런 行爲들은 安全이라는 一次元的 價値로부터 해석되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 매우 오랜 기간 그 行爲들은 自然的 상태 다시말해 “산다는 것” 자체와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서 있었고 이런 行爲들에 社會的 機能——여기서 社會的 機能이란 이 行爲들이 社會에 대해 存在해야 할 충분한 資格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이 요구되면서 이들은 意圖적이고 形式화된 형태로 발전해온 것이다.

(1) 임중순, 圖書館學概論, 韓國圖書館協會, 1969, p.24. 참조.

(Pierce Butler는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에서 人文哲學的인 思想內容과 접근 방법으로서 圖書館을 새로운 科學으로서의 理論的인 展開를 試圖하였다.)

圖書館은 根本的으로 어떤 人間의 行動에서 그 起源을 찾을 것인가? 圖書館은 自然的 상태의 人間행동이 형식적인 형태로 발전한 한 組織體로서의 의미는 가지는가? 그렇다면 圖書館은 政治 經濟 教育的인 行爲와 같은 어떤 속성을 가진 人間行爲로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 (2)

教育이라는 行爲는 人間적 사실로서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며 이 教育은 人間 文化의 축적, 다시 말해 자연적 과정으로는 전승되지 않는 文化를 반드시 전승해야겠다는 社會的 意志에 의해 條件化 되어왔다. 이런 의미에서 教育은 時代의 정신을 대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시대가 어떤 人間의 行爲를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이 歷史的으로 정당한 것인 한 教育은 이 요구의 실현을 바로 教育의 사명으로 認知 하는 것이다. 教育에 있어서 수 많은 思潮의 흐름 理論의 形成, 技術의 발전은 教育의 歷史性에 비추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간단한 教育行動의 진술에도 적어도 教育학이 社會科學으로서 學的體系를 가질수 있었던 근거를 보이고 있다. 즉 교육적 행동은 人間의 行動으로서 實體의 意味를 가지고 있으며 文化創造의인 機能을 그자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교육적 행위는 文化의 요구에 의해 條件化될 수 있다는 가능성 즉 歷史的當爲性을 가진 행동 이라는 사실이다.

教育科學은 이런 역사성을 전제하고 교육적 행동의 “패턴”을 명백히 규정할 수 있을때 가능했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圖書館“的” 行爲는 教育的 行爲와 같은 수준에서 存在하고 있다는 假定이다. (3) 이 假定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圖書館“的” 행위는 시대의 정신을 정당하게 수용하는 그런 행위인가? 하는 문제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 물음은 간단하게 대답될 수 없는 어려운 물음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社會思想史的 立場에서의 圖書館 研究가 우선 요청된다. 다만 本考에서는 지금까지의 圖書館史 연구성과를 볼 때 圖書館“的”

(2) 이 물음은 根本的으로 圖書館이 하나의 社會科學으로서의 성립 가능성을 묻고 있다. 요컨대 圖書館의 行爲의 實體性과 歷史性的의 요구이다.

(3) 그것을 情報라고 표현하는 달리 표현하는 圖書館“的” 행위의 存在를 가정한다. 적어도 圖書館은 Hotel과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圖書館은 人間의 근원성에서 그 存在 的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이다.

4 도서관학논집

행위는 얼떨히 시대 정신의 소산이었다고는 주장 할 수 없을 것 같다.⁽⁴⁾

19世紀에 들어오면서 圖書館 研究에 原理的 추구가 보이고 이 原理的 추는 구 결국 圖書館 기술의 전문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며 이 전문성의 확립은 다시 圖書館 教育을 발전 시키는 계기를 이룬다.⁽⁵⁾ 1930年代에 나타나는 圖書館學에 대한 심각한 반성은 다시 圖書館의 行爲에 대한 本質的 접근에 대한 圖書館學界의 願望을 대변하고 있다.⁽⁶⁾ 이를 계기로 많은 圖書館學 연구자들의 의식 속에는 圖書館 存在의 독자적 의의에 대한 신념을 강하게 표현한다.⁽⁷⁾ 이 신념을 구성 하는 주요 개념은 교육과 문화와 학술의 발전 (요컨대 인류 문화의 발전)으로 나타난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명백한 존재의의는 이 신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즉 미국 학교도서관 협회에서 「학습은 충분한 수의 유자격 직원에 의한 봉사, 정선된 풍부한 인쇄자료와 시청각자료 및 학교에 있어서 이 자료들을 쉽사리 접할 수 있게 하는 정리 등…… 일정한 조건이 효과적으로 갖추어지면서만이 비로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⁸⁾

그러나 이와같은 신념은 圖書館“的” 행위를 지적 할 만큼의 합당한 논리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⁹⁾ 물론 圖書館에 대한 이런 신념들은 도서관의 이념 혹은 사회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평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圖書館의 이념이 圖書館의 현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은 가질 수 있으나 현상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기 할 필요가 있다.

圖書館學 —圖書館科學—은 圖書館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그 學의 體系가 결정된다. 즉 圖書館의 行爲의 “패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圖書館的

(4) 圖書館史는 “무엇을” 보라는 “어떻게”에 주로 관심을 둔 事實로 매워져 있다. “어떻게”는 곧 圖書館의 技術 發展史를 대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로운 圖書館史의 연구는 절실히 요청 된다.

(5) 임준순, 圖書館學概論, 韓國圖書館協會, 1969, p.21 참조.

(6) 鄭稅謨, 文獻 情報學原論, 아세아문화사, 1977, p.125 참조.

(7) 鄭稅謨, 圖書館學의 새로운 體系, 중앙대학교 논문집, 제14집 1969, p.9 참조.

(8) The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Program*. Chicago, ALA, 1960, p.39

(9) 鄭稅謨, *op. cit.*, p.9 참조.

行動의 證據적 現象을 지적할 수 있느냐에 따라 圖書館科學을 體系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본연구는 첫째 圖書館 理念을 중심으로 내려진 圖書館 定義를 비판하는데서 실마리를 잡는다. 이런 류의 정의를 대표한다고 보고 鄭 駁謨 교수의 所論을 事例로서 비판하고자 한다. 특히 이를 비판하고자 함은 우리나라 圖書館 學界의 體系 수립의 論議에 참여하려는 연구자의 의도 때문이다. 들쭉는 圖書館 “科學”의 시도를 위해 圖書館 그 자체의 “觀”을 수립하는 문제이다. 觀의 문제는 곧 定義의 問題이기도 하다.

Ⅲ. 文化暢達의 條件造成으로서의 圖書館“觀” 批判

圖書館學의 體系에 관한 論議을 先導하고 있는 몇분의 先學들 가운데 鄭 駁謨교수의 “圖書館學의 새로운 體系” 試圖는 매우 도전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새로운 體系에 대한 批判的 評價는 가해질 필요가 있다. 鄭教授는 圖書館을 定義하여 「도서관은 학술과 문화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한 조건조성에 봉사하는 기관」⁽¹¹⁾이라고 하고 이어서 「학술과 문화의 효과적인 발전을 “文化의 暢達”이라고 表現한다면 圖書館은 文化의 暢達을 위한 條件造成에 봉사하는 기관이다」⁽¹²⁾라고 했다. 外見上 이 정의는 圖書館은 한 시설물이고 시설물은 어떤 생활영위의 편의 제공을 위해 당연히 있는 것이다 라는 사회적 通念을 명백히 부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정의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定義는 그 자신이 이 定義를 구성할 때의 問題의 資源이 되었던 圖書館 運營上의 技術적면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現象 종합적인 定義를 止揚하여 圖書館의 本質的 問題를 지적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이 정

(10) 圖書館의 行動이 있다면 이 행동은 圖書館이라는 특정한 기구에 국한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인간의 행동은 어떤 통제의 필요 때문에 그것이 기구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학교는 교육의 한 전문 기구일 뿐이다. 도서관은 학교와 같이 한 전문 기구이나 하는 물음도 역시 제기 되겠지만 일단 한 기구라고 가정하고 싶다.

(11) 鄭駁謨, 圖書館學의 새로운 體系, 중앙대학교 논문집, 제14집, 1969, p. 74.

(12) *Loc. cit.*

의는 外見上 이와같은 공현이 과연 構造的인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더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 정의는 ① 文化的 暢達 (학술과 문화의 발전) ② 條件造成 ③ 奉仕 ④ 機關이라는 네 概念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文化的 暢達은 圖書館의 前提를 이루고 있다. 정의를 구성함에 있어서 前提는 그 前提 자체가 누구나, 어떤 때에도 명백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을 때는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정의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前提를 정의의 핵심개념으로 삼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되는것은 「文化暢達」의 개념이 매우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¹³⁾ 文化的 暢達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구체적이란 개념의 詳說이 아니라 實體性을 지적한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② 條件造成은 도서관의 對象을 지적하고 있는 개념인듯 하다. 條件造成의 원래적 의미는 기대되는 결과의 誘導이다. 여기에는 극단적으로 A라는 원인을 조작하면 반드시 B라는 결과가 나와야 하고 나온다는 기계론적 思考로부터 C라는 목표의 자율성을 승인하고 이 목표 달성에 외부적 간섭을 最小化시키는 일 까지이다. 즉 어떤 전문적 과업수행과 과업 능력이 상반될 수도 있는 두 기능 사이에서 조화를 얻으려는 소위 자율성 보존을 위한 간섭의 最小化를 뜻한다. 특히 公事性을 띤 전문적 과업에서 있어야 할 행정적 조치의 한 規範을 나타낸다. 圖書館에서의 條件造成은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 것일까? 圖書館에서 마련 한 條件造成에 따라 文化를 마음대로 조작해낼 수 있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文化暢達이라는 전문적 과업의 자율성을 보존하기 위한 간섭의 最小化라는 행정적 규범과 같은 것이냐? 양자의 어느 중간의 한 지점이나? 어떻던 圖書館에서 條件造成이라는 對象으로서 그 對象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 규범을 가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③ 奉仕는 이 정의에 있어서 圖書館의 活動樣相을 대표하는 개념이다. 奉

(13) 社會的, 人間的 현상을 理念化한 때 그 前提는 곧 文化暢達이다. 교육, 정치, 경제 등 모두가 文化暢達이다. 圖書館學이 이들 學問들과 같이 되기 爲해 특별히 文化暢達을 내세울 필요는 없다. 오히려 文化暢達의 道具를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仕는 항상 “~에 대한” 것이다. 이는 어떤 특수한 所爲에 의해 奉仕者와 被奉仕者가 관련맺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奉仕行爲는 봉사자와 피봉사자 간의 충분한 묵시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봉사행위 자체는 선택적일 수 있다. 이 선택성은 봉사행위의 성질에 따라 그것이 갖는 힘이 결정된다. 의료행위라는 봉사행위는 의료행위의 고도의 전문성 때문에 큰 힘을 가지며 유흥행위라는 봉사행위는 이에 비해 힘을 가지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봉사행위는 역사적 맥박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에 있어서 당위적이고 시대적정신을 대표하는 행위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는 “學校”의 활동양식을 奉仕라고는 결코 표현하지 않는다. 學校는 人間の 歷史를 통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¹⁴⁾

圖書館의 定義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으로써 “奉仕”를 승인할 수 있을까? 물론 圖書館은 學校와는 다르다. 아울러 의료기관과도 다르다. 圖書館의 일반적 임무수행에 있어서 奉仕의 이어야 한다는 것은 활동의 원칙일 뿐이다.⁽¹⁵⁾ ④ 機關은 원래 다양하고 개성적인 일꺼리를 표준화 하므로써 능률을 극대화 하려는 사회적 조처에서 생긴 것이다. 역사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기관의 폭주를 보게된다. 사실 이런 표준화의 수준에서 볼 때 학교마저도 충분한 기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圖書館은 충분한 기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기관의 성질을 수용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 圖書館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¹⁶⁾ 이와같이 볼 때 정교수의 圖書館 定義는 그가 이 定義를 끌어낼 때까지의 問題의 所在로 삼았던 소위 圖書館 現狀을 중심으로 했던 定義 만큼이나 모호성을 나타내고 있다. 현상중심의 모호성은 圖書館“的” 행위의 불명료이요, 도서관 본질의 지적, 이런 의미에서 규범적 정의를 시도한 정교수의 정의는 成文化된 圖書館 理念的 한 형태

(14) Sabar, Josefa E., *Methods of teaching librarianship*, 1969 (服部金太郎, 岡田靖共譯, 圖書館學教授法, 日本圖書館協會, 1974, p. 13 참조).

(15) 任鍾淳, 圖書館學總論, 韓國圖書館協會, 1969, p. 112 참조 (도서관의 기능으로써 봉사적 기능을 제일로 들고 있다).

(16) 鄭 교수는 아마 이런 의미에서 圖書館學的 명칭을 준체상고 있는 것 같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추상화 할 수 있어야 했고 추상화 할 수 있다면 그 행위는 이미 도서관에 국한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추상화 한다면 우리는 그 추상적 행위를 一般化시키는데 근단을 느끼면 추상 그 자체가 이미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의미를 가진 관념일 수 없을 것이다.

일 뿐 여전히 圖書館의 행위의 구체성은 없다. 결론적으로 이 정의는 圖書館科學의 수립을 위한 정의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규범적 정의로서도 圖書館을 옳게 규범화 하고 있지 못하다. 어떻던 鄭교수는 자신의 定義에 쫓아 圖書館學을 文化暢達의 經濟的 方法論이라고 정의, 여기에 준해 圖書館學의 體系를 세우고 있다. 圖書館學의 定義 및 그 體系에 대한 논의는 本考의 범위 밖이다. 本考에서는 圖書館“觀”의 문제에 국한하여 있기 때문이다. 이 “觀”의 定立 후에 圖書館學의 體系를 다루고져 한다. 그때 다시 많은 기존 圖書館學의 體系를 문제 삼고자 한다.

Ⅳ. 圖書館 定義의 試圖

試圖되는 圖書館 定義는 도서관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의존한다.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圖書館“的”行爲를 효율적으로 “實踐”하고 의미 있게 “研究”할 수 있는 “基礎”는 일단 科學的인 것이어야 한다는 근거를 믿는다.⁽¹⁷⁾

오전에 圖書館의 行爲에 관한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고 그 위에서 규범적인 것을 고려한다는 뜻이다. 물론 규범과 사실은 圖書館의 行爲에 섞여 나타난다. 규범과 사실이 뒤섞여있는 圖書館의 行爲에서 사실을 분리하여 그 사실을 연구하므로써 예측 가능한 圖書館의 行爲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記述的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圖書館의 行爲의 歷史, 哲學의 문제는 많고 또 연구되어야 하지만 科學으로서 圖書館學 體系 수립에는 그리 도움되지 않는다. 科學으로서의 圖書館學은 무엇보다 圖書館의 行爲의 중핵적 현상을 지적하므로써 圖書館“觀”을 定立하는일이 요청된다.

본연구에서 圖書館은 「探究의 行動의 組織的인 形成」이라고 정의된다. 이

(17) Butler, Pierce,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Univ. of Chicago, 1933. (劉永珉譯 圖書館學概論, 연세대학교, 1961, p.10 참조)

정의는 물론 기능적 견지의 도서관 정의 혹은 目的論的 도서관 정의와 같은 규범적 이거나 기술 종합적인 정의가 아닌 記述的인 정의이다.⁽¹⁸⁾

그러면 과연 이 정의가 도서관학계에 또 하나의 어지러운 주장을 더 보태는 다만 허구적인 정의일 뿐인가 아니면 이 정의를 구성하는 명제들이 眞으로 판명될 수 있는 實體的 정의인가를 분석해 보자.

① 이 정의를 위해서 몇가지 前提의 가정이 필요하고 또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본고에서 사용되는 “圖書館”의 개념은 通念上的 실비, 요컨대 도서관의 物質的 要素를 넘어서 있다.⁽¹⁹⁾ 진실로 이 가정은 圖書館 研究에 큰 중요성을 갖는다. 사실 이 通念은 도서관의 실무자들 심지어 도서관 연구자들의 研究 假設 속에 암암리에 수용되고 있다. 이는 圖書館의 歷史性에 대한 몰각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즉 마치 圖書館의 歷史가 여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온 그런 設備의 發達史와 같이 사색된 오늘 우리나라 圖書館學界의 연구풍토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圖書館의 概念이 歷史性을 가질 때만이 社會科學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²⁰⁾

둘째 圖書館은 文化的 成果이고 圖書館의 發展은 文化的 蓄積이라고 가정한다. 人間的, 社會的 모든 현상은 文化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 즉 동일한 한 현상에 대해 물질의 운동법칙을 생각하면 이 경우 그현상은 自然科學的 對象이 되며 그 현상의 社會的 배경을 궁리하면 社會科學的 對象이 될 것이다. 그 현상이 어떤 方法的 體系에 의해 고려될 때 이미 그 현상은 文化的 對象이 된다. 教育學的 體系, 心理學的 體系, 政治學的 體系는 분명히 존재한다. 圖書館은 文化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文獻으로 기록된 文化의 보존, 정리, 이용을 위한 그대로 文化의 부수적 실비와 같은 그런 관계인가? 농민이 농사를 짓고 농사의 소산을 일정기관 보관하는 그런 창고

(18) 이흥주, 도서관학의 문제점, 도현월보 Vol.11 No7. 1970, 참조.

(19) 記述的인 정의란 정의를 구성하는 개념들이 행동적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으며 언제든지 실증에 의해 그 진위를 들어낸다.

(20) 歷史性을 가지지 않은 학문으로는 數學, 論理學과 같은 형식적 학문을 들수 있으며 모든 社會科學은 역사적 내용을 가진다.

와 같은 것인가? 많은 연구는 이 관점을 강력히 부인 하면서도 암암리에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다.⁽²¹⁾

圖書館은 社會的 人間的 現象을 文化로 만드는 한 道具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연구에서는 圖書館“的”行爲의 實體性을 이미 간청한 바 있다. 셋째 圖書館의 文獻 整理는 技術的인 문제가 아니라 整理 그자체 自律的 選擇의 機能이라고 가정한다. 圖書館은 受容器에 불과하다. 그래서 모든 情報는 기계적으로 분류된다는 같은 通念도 도서관의 실천자와 연구자 들간에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모든 學問은 그 學問이 對象으로 삼는 現狀을 體系의으로 정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정리는 곧 그 현상으로 하여금 미래의 진행에 있어서 선택적이게 해준다. 선택적일때 文化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 기능은 학문의 근원적 원리와도 같은 것이다. 圖書館學이 學問이라면 圖書館 現狀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 현상으로서 정리는 學的으로 정리될 수 있기 위해 기계적 장치들 넘어서서 문화전반에 대한 선택적 기능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가정은 매우 도전적이다. 그러나 이 가정을 통해 圖書館學이 他學問과 관련되는 論理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가정은 圖書館學의 성립을 위해 해명되어야 할 先決問題와도 같은 것이다.

② 學術, 敎育을 위해(文化的暢達 이라고 해도 좋다) 圖書館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일반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인정하고 어떻게 圖書館이 文化暢達에 기여할 수 있는가?⁽²²⁾ 文化는 人間이 학습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상징할 수 있는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²³⁾ 文化의暢達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문화를 번식하고 창조하는 人間固有의 독자적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도서의 보존, 정리, 대출 등은 그 자체 문화번식과 창조의 독자적 노력은 아니다. 그것으로 文化를暢達한다면 여행자의 잠자리와 숙식을 제공하

(21) 이흥주, *op. cit.*, 참조.

(22) 圖書館을 보존하고 정리하고 대출하므로써 文化暢達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23) Eliot, T. S., *Notes Toward The Definition of Culture*. Faber, 1945, p.156 참조.

는 것으로 여행에 직접 참여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 圖書館은 어떤 社會的 人間의 思想에 직접참여 하여 文化暢達을 도우는가? 圖書館이 수출신장에 나서고 교실의 수업에 뛰어들 수는 없다. 그것은 圖書館活動이 아니다. 經濟活動이고 教育活動이다. 圖書館은 文化暢達의 主體들을 對象으로 한다. 바로 人間을 對象으로 한다. 그 인간은 교육활동, 정치활동, 연구활동,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人間이다. 그저 存在로서의 人間이 아니다. 歷史 속에 참여하여 그의 독자적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人間이다. 우리는 人間의 독자적 노력에 의해 文化的 형성과 계승이 있다는 오래된 신념을 믿는다.

여기서 이러한 圖書館의 對象으로서의 人間을 「探究的 行動」으로 표현될 수 있다. 行動은 피상적 표준적인 움직임으로 부터 반성적 思惟에까지 넓은 범위를 가진 概念이다. 行動科學에서 對象으로 하는 行動을 여기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行動은 일단 모두 기술 될 수 있고 분류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된다.⁽²⁴⁾ 기술되고 분류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行動을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도 받아들인다. 표준적인 行動은 그 예측이 매우 쉽고 간단한 장치로서 가능할 것이고 반성적 行動은 그 예측이 어렵고 복잡하다.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예측 그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科學은 이 신뢰성의 회복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行動을 예측 할 수 있음은 行動을 조작 할 수 있다는 가정도 또한 성립시킨다.

「探究的 行動」은 물론 기술하고 분류되어 그래서 예측과 조작이 가능한 行動이다. 여기서 探究的 이라는 條件이 무엇을 대표하는 가에 대해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探究란 發見하기 위해 發見의 새로운 道具를 찾아 헤메는 人間의 精神狀態이다.⁽²⁵⁾ 요컨대 發見對象과 人間行動의 긴장상태이다. 그러므로 探究의 第一條件은 “創造的” 이어야한다는 것이고 第二의 條件은 “實驗的” 이어야 한다. 즉 새로운 것의 發見과 한편 시도해 보고 시도해 볼 수 있

(24) 金光雄, 社會科學研究方法論, 박영사, 1976, p. 74 참조.

(25) Wilson, John T., *Processes of Scientific Inquiry: A Model for Teaching and Learning Science*, Science of Education, Vol. 58, No. 1, 1974. 참조

는 意志와 方法을 意味한다. 圖書館의 對象으로서 人間의 行動은 “探究的”이라는 범위에 들어오는 모든 行動을 기술하고 분류하고, 그래서 豫測과 操作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물론 圖書館은 探究的 行動 그 자체는 아니다. 圖書館은 探究的 行動을 할 수 있는 人間과 그 결과 새로운 發見을 얻어낼 수 있음을 문제삼는다.

探究的 行動에 대한 科學的 파악으로 우리는 探究的 行動을 形成하는 技藝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③ 圖書館은 궁극적으로 發見하고 實驗하려는 人間의 探究的 行動을 形成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形成은 어떤 意味를 가지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形成은 변화라는 개념과 指導라는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形成은 변화 할 수 있다는 진술에서 그 契機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動物은 변화의 幅이 너무 좁고 神은 全能하기 때문에 “形成”이란 言語를 바르게 쓸 수 없다.

人間行動에서만이 形成이라는 言語가 알맞다. 人間의 행동은 그 根源性에 있어서 변화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人間의 行動을 원인과 결과의 律에 의한 반응과 같은 것으로 해석한다면 거기에는 形成의 言語를 적절히 쓸 수 없다.

이 경우 人間의 行動은 기대되는 結果를 낼 수 있는 원인만 공급하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機材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人間의 行動에는 이런 機材로서 認知 되는 부분이 많다.⁽²⁶⁾ 원인과 결과의 律로서는 설명되지 않는 行動은 目的과 選擇의 律로서 이해될 수 있다.⁽²⁷⁾ 目的과 選擇의 律로서 이해되는 人間行動은 그자체 自律性을 갖는다. 自律性을 갖고 변화하는 人間行動은 目的에 의해 指導되는 行動이다. 目的에 쫓아 自身の 行動을 조정하고 수정하므로써 자신의 독자적 行動의 방식을 이루어간다. 여기

(26) 行動科學에서는 모든 人間行動은 이와같은 機制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다만 지금 이 機制로 설명의 설명되고 있지않은 부분은 行動을 記述하는 道具가 아직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27) 어찌면 모든 人間行動은 因果律로서 설명되지 않을지드 모른다.

에 形成이라는 言語를 正當하게 쓸 수 있다.

探究的 行動은 ②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발견함과 실험함이라는 行動的 目標를 분명히 한다. (28)

人間的 行動 가운데 探究的 行動만큼 그 目的성이 뚜렷한 경우는 없다. 探究的 行動은 곧 形成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行動이다. 그러던 形成한다고 할 때의 「形成」의 樣相은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차례이다.

「形成」한다함은 어떤 現狀에 대해 질서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現狀은 時間的으로 空間的으로 지금 進行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 現狀에는 필연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 기술적인 것과 규범적인 것이 동시에 나타난다. 現狀은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그 進行과정은 성격적이다. 그래서 현상은 一回的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現狀은 질서 이전의 혼돈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이 現狀은 질서를 기다리는 形式으로 존재한다. 現狀의 時·空間性을 떨쳐버리고 보편성을 주고자할 때 이미 우리는 질서를 주는 행동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29) 질서는 우리의 目的的 行動의 產物이다. 現狀이 언제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질서지워진 現狀(30)은 특수한 目的에 조직된 상태라고 할 것이다. 결국 질서지운다는 것은 우리가 意味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우리는 意味 세계를 창조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향유하는 모든 文化는 생산된 意味의 축적이다. 우리가 意味를 생산함은 결국 축적된 文化와 축적될 文化의 관계를 통해 이해되는 기업이다.

探究的 行動은 우리의 보다 세련된 目的(발견하고 실험 할려는 人間的 의도에 의해 구성된 가장 순수한 目的이다)에 의해 형성된다. 探究的 行動의 소산은 곧 우리의 意味生産의 최대 기업이며 축적된 文化와 축적될 文化의

(28) *Strike Logic of Learning by Discover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4, No.3, 1975, 참조.

(29) 질서지워진 現狀은 이미 現狀이 아니다. 그것은 意味의 세계를 상징한다.

(30) 분산되어 있는 근육의 운동은 수렴한다는 目的的 行動이 되기 이전의 무질서한 상태이다. 그저 주어질 상태로 있는 근육운동은 우리의 意圖에 의해 어떤 형태로 질서지울 수 있다.

精選된 관계인 것은 사실이다. 圖書館의 基本的 意義가 文化暢達에 있다면, 그리고 人間의 文化暢達의 根源的 行動이 人間의 探究的 行動이라면, 이 探究的 行動을 形成하는 일 즉 探究的 行動이 만들어내는 現狀(發見하려는 노력과 실험해 보려는 意志)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어떤 目的에 準해) 질서 지워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축적된 文化와 축적될 文化의 관계 정립에서 成立한다. 어떻게 질서지우느냐 하는 물음이 남았다. 스위 圖書館의 奉仕(任務)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行爲이다. 여기서 어떤 行爲를 “組織的”이라는 言語로서 상징시켰다. 우선 여기 “組織的”이라고 하는 것은 自然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배제한다. 인간의 일차적 행동은 거의 自然的으로 진행되며 그래서 이런류의 행동은 제외된다. 二次的 行動——探究的 行動은 여기에 포함된다——에도 그 行動主體의 의도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많다. 이런 경우도 “組織的”에서 제외된다. 探究行動 즉 主體의 信念과 理論과 技術에 의해 진행되는 探究行動이 이 “組織的”이라는 言語를 대표한다. 이런 의미에서 本定義上의 “組織的”이란 첫째 무엇을 發見(실험) 하려는가? —명백한 目的이 무엇이나? — 둘째 어떤 계획과 過程을 가지고 있는나? — 目的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方途가 있는나? — 하는 두 條件을 가진다.

探究的 行動을 성격있게 하는 探究對象을 아는 것은 이 行動을 形成하는 實踐的 原理를 아는 것과 같다. 探究의 對象을 모르는 圖書館業務는 受動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마치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展示場에 불과한 것이다. 이때 도서관은 形成者가 아니라 形成의 放浪者로서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探究對象을 안다는 것은 探究主體의 探究問題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 보다는 오히려 文化의 體系, 學問의 體系를 안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우리는 目的(探究對象)을 알므로써 그 目的을 달성하는 過程을 계획할 수 있다. 요컨대 探究行動의 능률적 수행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가졌을 때 自主的이고 獨自的 行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圖書館에서 “이렇게” 奉仕한다는 것은 바로 이 “組織的”이라는 言語로서 설

명되어야 할 것이다. 圖書館의 行動의 組織性은 探究的 行動을 形成하고 媒介의 活動의 組織化를 뜻한다. 이 媒介의 活動의 중핵적 요소는 축적된 文化이다. 축적된 文化는 계승되어야 하고 이 계승은 축적된 문화의 축적으로 가능하다. 축적된 文化가 축적될 文化와의 적극적 관계를 단절하면 이미 그 문화는 생명을 잃는다.

이렇게 볼 때 圖書館 活動의 組織性은 두 文化의 관계를 어떻게 定立하느냐 하는 문제로 된다. 이는 圖書館 活動의 組織化가 첫째 계획적이고 둘째 선택적인 기능의 수행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첫째의 계획이라는 기능은 探究行動을 이런 저런 절차 혹은 方法으로 인도해 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의 선택이라는 기능은 축적된 文化에 대한 자율적 통제의 뜻을 갖는다. 圖書館 活動의 매체로서의 축적된 文化는 주로 圖書임은 사실이다.

⑤ 이와같은 圖書館의 定義는 결국 圖書館을 文化 축적의 道具로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圖書館은 하나의 시설물이 아니라는 것과 圖書館은 社會 모든 文化를 暢達하는 후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확인한다. 圖書館은 文化를 직접 創造하는 道具(方法論的 體系)이며 이 道具는 社會科學的 性質을 띠고 있다. 社會科學의이란 圖書館이 社會的 現狀임을 승인하고 그 方法論이 社會科學의 方法論에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定義 대로라면 圖書館은 분명히 文化暢達의 受動的 역할 즉 條件造成과 같은 미약한 힘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힘을 갖는다. 발견하려 하고 실험해 보려는 사람(探究的 行動의 所有者)은 모두 圖書館의 對象이 되며 그가 노리는 어떠한 것도 圖書館을 통하여 통해야 만이 얻어 질수가 있다는 주장을 성립시킨다.

그리고 圖書館은 文化에 대해 선택권을 갖는다. 圖書館은 버려야 할 文化와 보존해야 할 文化를 가려낸다. 더 크게 圖書館은 있어야 할 文化를 마음대로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圖書館的 行爲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런 圖書館의 고유하고 유일한 임무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된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어나는 行爲가 될 것이다. 가정에서 아들이 探究的 行動에 대해 아버지의 組織的인 形成意圖는 바로 圖書館 行爲

이다.

아버지의 探究行動의 形成意圖(프로그램)는 圖書館의 理論과 實證에 의해 수립되 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圖書館은 教育과의 연관성을 맺는다. 단순히 學校(교육의 한 전문적 기구일 뿐)가 공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圖書館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圖書館은 學校에서 없어서는 안되며 그래서 圖書館은 教育과 피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探究的 行爲가 있는 곳은 圖書館의 理論과 實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圖書館은 教育行爲의 전부는 아니다. 圖書館은 교정한다던지 교화한다던지 향상시킨다던지 하는 教育的 行爲와 같은 것 일 수 없기 때문이다.

V. 結 論

圖書館學(科學)의 성립을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圖書館學 자체의 부정은 오늘의 시점에서 별 의미없는 주장이 되고 있다.

圖書館의 定義 문제는 圖書館學의 體系를 결정하는 문제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며 많은 圖書館學 研究者들 혹은 圖書館 종사자들은 定義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圖書館이라는 현상이 社會的 人間的 사실인 한 이 定義 수립의 문제는 논쟁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단 圖書館學은 社會科學의 一分科이고 社會科學으로서 圖書館은 어떤 方法論的 體系와 成格을 갖는 學問인가 하는데 관심을 모우는 것은 이방면 연구의 중요한 참여가 될 것이다.

사실 많은 圖書館 定義를 보면 圖書館 運營上의 技術的인 것을 중심으로 한 것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³¹⁾ 이런 定義들로는 옳게 圖書館 “觀”을 수립할 수 없을 것이며 學의 體系를 論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圖書

(31) 많은 圖書館學 研究者들이 각국의 도서관협회 혹은 圖書館學 관계 辭典의 運營上의 用語 定義를 援用하고 있다.

館學界 內에서도 圖書館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것도 지금과 같은 定義를 암암리에 受容하고 있기 때문이다. 運營技術上의 定義는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했고 이 비판은 주로 圖書館의 소위 規範的 定義를 낳게했다. 그러나 規範的인 定義로는 圖書館 科學을 옹계 수립할 수 없다. 또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規範的인 定義에는 그 概念들이 매우 모호할 뿐 아니라 스스로 圖書館學을 「學」이 아니게 만드는 결과를 빚을 수 있는 것이었다.

圖書館은 「探究的 行動의 組織的 形成」으로 定義되었다. 이 定義는 圖書館의 行動의 중핵적 현상을 지적하는 기술적 定義이다. 이 定義는 記述과 實證이 가능하고 그래서 예측과 操作이 가능한 圖書館的 行爲를 定立해보려는 試圖를 대표한다.

이 定義는 첫째 圖書館的 行動은 그 根源에 있어서 人間行動의 한 樣式이고 원래부터 人間社會에 존재하고 있다는 가정을 받아들이고 있다. 圖書館的 行動은 圖書 저장고로서의 圖書館이 생기고 난 뒤부터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이 定義는 圖書館的 行動은 歷史性을 가진다는 가정을 또한 受容한다. 이 行動은 일시적 편의에 의해 이리 저리 변동되어온 것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에 충실하게 존재해 왔다는 점이다. 셋째 이 定義는 圖書館的 行動이 문화축적의 本質的 行動이라는 가정을 승인한다. 세번째의 가정은 첫째번과 둘째번 가정을 受容하면 당연히 전개 되어야 할 가정이다. 人間の 다른 行動 예컨대 政治, 經濟, 敎育 등이 (政治學, 經濟學, 敎育學이라고 해도 좋다) 문화를 축적하는 것을 도와주는 시너와 같은 地位가 아니라 圖書館的 行動 (圖書館學)도 文化創造와 繼承의 獨自的 道具를 가지고 있다는 信念이다.

이와같은 가정을 受容하고

① 探究的 行動은 人間の 行動 가운데 첫째 發見함과 둘째 實踐함의 條件을 가진다. 결국 探究的 行動은 自然狀態로 두어서는 아무런 성취를 얻어낼 수 없고 오직 명백한 意圖에 의해 지도 받았을 때 그것은 意味를 가진다는

것이다. 圖書館의 對象은 바로 이런 人間行動 이다.

② 形成은 指導와 自律性을 동시에 認定한다. 무엇을 발견하고 실험하려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指導의 行爲를 가능케 하며 이 指導는 무엇을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指導받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探究行動을 결말지으며 그 결과는 그 스스로의 다음 探究行動을 위해 豫備된다는 뜻이다.

③ 組織的이란 능률적인 수행을 의미하며 능률적인 수행은 명백한 行動의 目標없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行動의 目標란 「발견함」의 行動 그 自體이다. 圖書館의 組織性은 바로 축적된 文化와 축적될 文化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런의미에서 圖書館은 문화 축적에 대해 계획성과 선택성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갖는다. 圖書館은 文化創造와 변식을 위해 모든 축적된 文化를 계획할 수 있으며 또 圖書館은 버려야할 文化와 취해야할 文化를 가려내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로 이 定義대로라면 圖書館은 文化의 繼承과 創造에 대해 큰 힘을 갖는다. 지금의 시점에서 圖書館을 과연 이 定義와 같이 볼 수(觀) 있느냐 하고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圖書館學을 社會科學의 學問的 體系로 세우려 한다면 이 定義와 같은 圖書館을 試圖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光維, 社會科學研究方法論. 박영사, 1976.
 이종주, 도서관학의 문제점: 학문으로서의 도서관학. 도협월보, 11권 7호 1970. pp. 16~22.
 任鍾淳, 圖書館學概論. 韓國圖書館協會, 1969.
 圖書館學의 定義에 대하여. 延世大圖書館學會誌 3집 1968. pp. 78~84.
 鄭駉謨, 도서관 명칭의 변천에 대하여. 도서관학 2집, 1971. pp. 63~78.
 圖書館學의 새로운 體系: 文化暢達의 經濟的方法論의 展開. 중앙대 논문집, 14집 1969. pp. 65~90.
 文獻情報學原論. 亞細亞文化社, 1977.

- 韓國圖書館協會編, **圖書館實務便覽**. 韓國圖書館協會, 1966.
- 澁田義行, 近代圖書館の理念と 圖書館員の專門性について.
圖書館界, 29卷 2號, 1977. pp.49~56.
- 椎名六郎, 新 **圖書館學概論**. 學藝圖書, 昭和 48年(1973)
- 草野正名, **圖書館學原論**. 内田老學圃新社, 昭和 42年(1967)
- Butler, Pierce,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1933.
 (劉永茲譯, **圖書館學概論**. 연세대학교, 1961).
- Gates, Jean Key, *Introduction to Librarianship*. McGraw-Hill, 1968.
- Hessel, Alfred, *History of Libraries*. Scarecrow, 1955(李春熙譯, **西洋圖書館史**. 韓國圖書館協會, 1968)
- Kenneth, E. Boulding, The Economics of Knowledge and the Knowledge of Economic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6. (鄭駉謨譯, 知識經濟學과 經濟學的 知識. **국회도서관보**, 7권 6호. 1970.. pp.58~68).
- Mittal, R.L., *Library Administration theory and Practice*. Metropolitan Book, 1973.
- Sabor, Josefa E., *Methods of teaching Librarianship*. 1969. (服部金太郎, 岡田靖共譯, **圖書館學教授法**. 日本圖書館協會, 1974).
- Shera, Jesse H., *The Foundation for Librarianship*. A Wiley-Becker and Hayes, 1972.
- Strike Logic of Learning by Discover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 No.3, 1975.
- Voigt, Melvin J., *Advances in Librarianship*. Seminar, 1970.
- Wilson, John J., Processes of Scientific Inquiry; A Model for teaching and Learning. *Science of Education*, Vol.58, No.1, 1974.

A Study on the System of Library Science
— a problem of the view-point of library —

Kim, Chung Soh

{Abstract}

The view point of the library is treated as a first subject. This study is scheduled to construct, as a experimental study, the system of the Library Science.

The study of this fields is called upon greatly because the trial to understand library as a socio-cultural phenomenon did not study as many times.

As a result of the study, library is defined as 「Structural Formation of Inquiring Behavior」. Not only technique and actual proof are possible in this study but also this definition is technical definition to indicate the main phenomenon of Librarial Behavior.

This schedule is represent the trial to define Library Behavior which could anticipate and fabricate when we analyze this definition.

First, we can find out, first of all, the researching behavior among the human behaviors and then human behavior has the condition of practice. At last, researching behavior can not have any results when it is a natural situation, it has only the meaning when it is guided by an obvious intention. The object

of the library is just this human behavior.

Second, Formation permits the guidance and self-control at the same-times. The answer about what we find out and practice make it possible the act of guidance. This guidance can't burden any subject but permit the people to result his own researching behaviors. He can save his activities, his own researching behaviors by the result of it.

Third, The statemtical means efficient performances, and then efficient performances is impossible except obvious object of behaviors. The object of behaviors, here is "discoveries" of behavior itself.

The system of the library is the form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the accumulated civilizations and accumulated civilizations. As the definitions of the above mentions, library has the big abilities to the creation and succession of the civilization.

As the contemporary view-points, there are some questions about the above described definition can meet with it of the library.

When we frame the science of library as the learning systems, we can't but try the library as this definitions.